

LG, '상생결제 낙수율' 10% 이상... 협력사 경쟁력 높인다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류재철·정철동 등 170여명 참여
대금지급 개선·금융지원 등 논의



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 하범중 (주)LG 경영지원부부장, LG 계열사 CEO, LG 협력사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LG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체계를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며 공급망 전반의 상생 생태계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기술·복지 지원을 넓혀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LG는 6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상생결제를 중심으로 2차 이하 협력사의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금융·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체결식에는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류재철 LG전자 사장, 정철동 LG 디스플레이 사장, 문혁수 LG이노텍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선주 LG생활건강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7개 계열사 CEO가 함께했다. 아울러 하범중 (주)LG 경영지원부부장 사장, 협력사 대표와 임직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LG 공급망에 속한 약 1300개(1·2차 협력사 기준)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LG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1차 협력사 대상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유지하고,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뜻하는 '상생결제 낙수율'을 국내 기업 집단 중 최대인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차 협력사들은 대기업의 상생결제를 통해 평균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상생결제 문화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이 최대 100일 이상 소요되거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는 등 거래 안정성의 격차가 있었다.

LG는 정부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인 상생결제를 도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1차 협력사들에게 정기평가 시 기점 부여,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의 원활한 대금 회수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LG 7개 계열사가 2025년에 상생결제를 통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은 약 13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지급될 경우 약 1조3000억원의 대금이 LG 계열사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2차 협력사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G는 2차 이하 협력사 지원 확대

를 위해 약 9000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운영금액 중 10%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복리후생이 취약한 협력사를 위해 LG 계열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협력사 임직원 전용 복지몰'도 개방하기로 했다.

LG는 금전적 지원에 더해 협력사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협력사의 DX를 돕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부터 250곳 이상의 협력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다. LG디스플레이는 교육·훈련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

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동 연구 개발 및 공동 특허 출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기술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있다.

LG이노텍은 2023년부터 '협력사 역량 강화 훈련센터'를 통해 AI 대응 역량 강화, 생산기술 노하우 전수, 전문 인력 파견 등 현장형 실습 교육을 제공 중이며, LG화학도 기술연구원과 CS캠퍼스에서 각종 분석·시험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협력회사에 기술·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 및 기술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공동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아틀라스' 월드컵 무대 데뷔

심판에게 경기구 전달 퍼포먼스
손흥민 등 유명선수 세리머니 선행



현대차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전 하프타임에서 아틀라스가 심판에게 경기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아틀라스가 심판에게 공을 전달하는 모습. /뉴시스

현대자동차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미래 로봇기술력을 과시했다.

현대차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16강전 브라질-노르웨이 경기 하프타임에 아틀라스가 심판에게 경기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틀라스는 선수 입장 터널에서 등장해 해리 케인, 앨링 홀란, 마테우스 쿠냐, 손흥민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세리머니를 연이어 선보이며 경기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어 심판에게 경기구를 전달하며 후반전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선보인 아틀라스는 지난 1월 C

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6에서 처음 공개된 차세대 전동식 개발형 모델로, 실제 관중 앞에서 동작을 시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변수가 많은 경기장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복합 동작을 수행하며 현대차그룹의 미래 로봇기술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인간의 움직임을 로봇 신체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는 리타겟팅 기술과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강화학습, 전신 관절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반응하는 전신 제어 기술이 결합해 자연스럽고 균형감 있는 움직임을 구현했다.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 지지원 부사장은 "전 세계 축구 팬이 지켜보는 월드컵 무대에서 아틀라스 퍼포먼스를 통해 미래는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자 했다"며 "앞으로도 인간 중심의 기술을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로봇기술을 통해 확장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깎뮌치 안전관리 솔루션 고도화

열 스트레스 상황 알고리즘 개선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관리 솔루션'과 연동된 '깎뮌치 위치'를 통해 폭염경보 알림을 확인하는 모습.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깎뮌치 위치 기반의 인공지능(AI) 안전관리 솔루션을 고도화하며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산업현장 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옥외 노동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열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5년 9월 출시한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관리 솔루션'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지원하고자 현장 온도·습도 등 환경 정보와 근로자의 심박수, 활동량 등 생체 데이터를 통합해 개인 맞춤형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인천대학교와 산학 협력 및 삼성서울병원과 임상 검증을 완료해 솔루션 신뢰도와 예측 성능

을 향상시켰다. 먼저 인천대학교 연구팀은 개인 데이터 기반 열 스트레스 예측 및 감지 알고리즘을 고도화했다.

또 삼성서울병원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는 공동 임상 검증을 진행하며 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신체 반응과 알고리즘 예측 결과 간 일치도를 검증해 솔루션 신뢰도를 높였다. /차현정 기자

한화큐셀, 美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 메타 전력 공급

200MW 규모... 모듈 공급·EPC 수행

소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약 32만장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EPC를 수행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미국 인디애나주 200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모듈 공급과 설계·조달·시공(EPC)을 함께 맡는다. 완공 후 생산 전력이 메타에 공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북미 시장에서 대형 전력 수요 기업을 겨냥한 통합 재생에너지 솔루션 사업 확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사 켈레스트라 에너지와 인디애나주 갑슨카운티에 조성되는 200MW 규모 태양광 발전

200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는 미국 약 3만6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발전소는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이며 켈레스트라 에너지와 메타가 체결한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생산 전력은 메타에 공급된다.

한화큐셀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이퍼스케일러 등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 기회를 넓힐 계획이

다. 단순 모듈 공급에 그치지 않고 발전소 개발에 필요한 금융, EPC, 기자재 공급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북미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크리스 호드릭 한화큐셀 EPC사업부 부장은 "한화큐셀은 미국 내 제조 역량과 검증된 EPC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자 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대한항공, 20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

우수한 신용도·미래 성장성 인정받아

다른 영업 시너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수한 신용도와 미래 성장성을 인정 받았다.

대한항공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으로 200억엔(약 1900억원) 규모의 사무라이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사무라이본드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이다.

이번 발행은 고유가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투자자들은 대한항공의 여객과 화물 사업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아시아항공 통합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무라이본드 발행은 안정적인 사업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매출 4조 5151억원, 영업이익 5169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1% 증가해 역대 1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47.3% 상승했다. /양성운 기자